

철새들의 낙원, 인천



EAAFP(동아시아-대양주 철새이동경로 파트너십)는 지속가능발전 세계정상회의에서 채택된 파트너십 국제기구로 이동성 물새와 그 서식지를 보호하기 위해 철새이동경로 전반에서 정부, 민간기업, 비영리단체, 기업 및 연구기관 등 모든 차원의 이해 당사자들 간의 국제협력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주소: 인천광역시 연수구 아트센터대로 175(송도동 24-4) G-Tower 본동 3F EAAFP 사무국 406-840 E-mail: secretariat@eaaflyway.net
 도움 주신 분들: Young-kwon Park, Chang-yong Choi, Maki Koyama, Minseon Kim, Judit Szabo, Dave Bakewell, Tim Edeken (Birds Korea), Mike Baird (Birds Korea), Robin Newlin (Birds Korea), Ki-oup Lee, Eugene Chesh 지도: 2015 Daum - Imagery © TerraMetrics, 2015 Google Earth, Incheon City Map Portal

출판: EAAFP 사무국
 www.eaaflyway.net | www.facebook.com/eaafp | www.youtube.com/eaafp | blog.naver.com/eaafp | www.flickr.com/eaafp | twitter.com/eaafp

EAAFP 사무국은 대한민국 정부(환경부와 인천광역시)에 의해 유지되는 인천 송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인천갯벌과 그 인근에서 번식하고 중간 기착하는 철새



저어새 Black-faced Spoonbill

- 번식지: 인천갯벌 인근 (강화도 남단의 각시암/요도(역섬)/수리봉, 송도의 남동유수지)
- 전세계 개체수: 3,272 (2015년 기준)
- IUCN 적색목록 범주: 국제적 멸종 위기종
- 환경부 지정 멸종위기 1급, 천연기념물



검은머리갈매기 Saunders's Gull

- 번식지: 인천갯벌 인근 (450쌍 이상)
- 전세계 개체수: 15,000 미만
- IUCN 적색목록 범주: 국제적 취약종
- 환경부 지정 멸종위기 2급



노랑부리백로 Chinese Egret

- 번식지: 인천 (서만도, 비도, 연평도, 황서도), 그 외 다른 지역 (300-500쌍 - 칠산도, 예도, 남대기 섬)
- 전세계 개체수: 2,600-3,400
- IUCN 적색목록 범주: 국제적 취약종
- 환경부 지정 멸종위기 1급



붉은어깨도요 Great Knot

- 중간기착지: 강화도, 영종도, 송도 인근 인천갯벌
- 통과시기: 4월-5월, 9월-10월
- 개체수 현황: 감소추세
- IUCN 적색목록 범주: 국제적 취약종
- 이동경로: 러시아 극동지방(번식지)에서 인천갯벌(중간기착지)을 통과하여 호주(월동지)로 이동



큰뒷부리도요 Bar-tailed Godwi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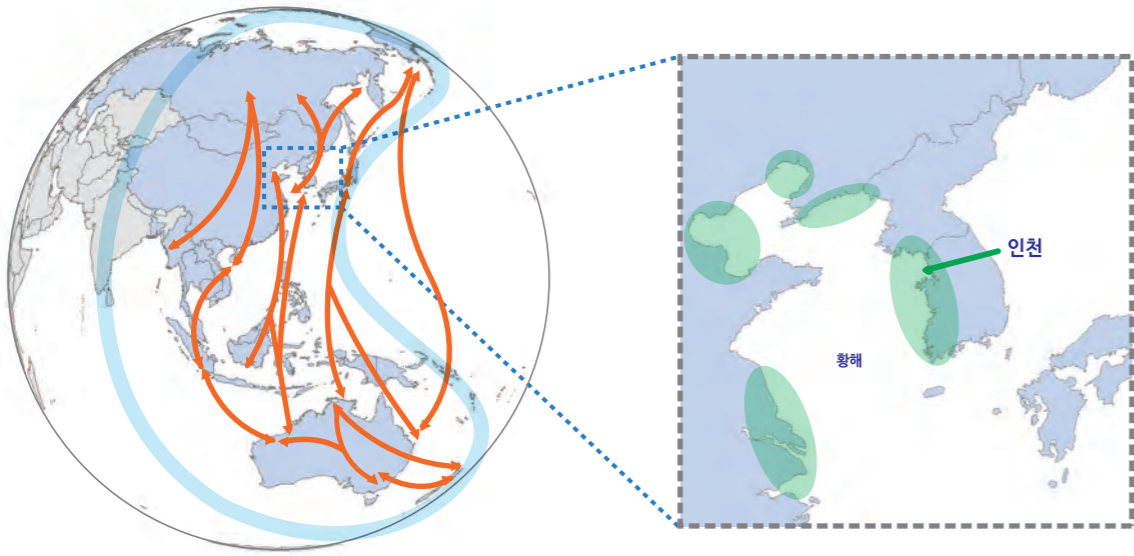
- 중간기착지: 강화도, 영종도, 송도 인근 인천갯벌
- 통과시기: 4월-5월, 9월-10월
- 개체수 현황: 감소추세
- IUCN 적색목록 범주: 국제적 취약종
- 이동경로: 러시아 극동지방(번식지)에서 인천갯벌(중간기착지)을 통과하여 호주(월동지)로 이동



알락꼬리마도요 Far Eastern Curle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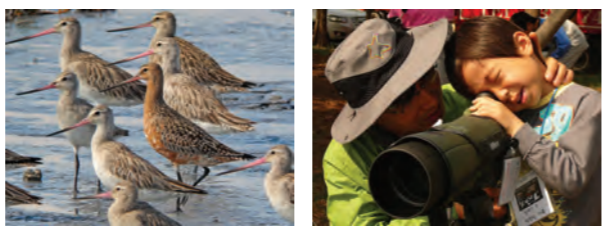
- 중간기착지: 강화도, 영종도, 송도 인근 인천갯벌
- 통과시기: 4월-5월, 9월-10월
- 개체수 현황: 감소추세
- IUCN 적색목록 범주: 국제적 취약종
- 이동경로: 러시아 극동지방(번식지)에서 인천갯벌(중간기착지)을 통과하여 호주(월동지)로 이동

동아시아-대양주 철새이동경로(EAAF) & 인천갯벌



수 천년 동안 200여종 이상의 물새류(도요물떼새, 두루미류 포함)는 극동 시베리아와 알래스카로부터 동남아시아를 거쳐 호주, 뉴질랜드에 이르는 동아시아-대양주 철새이동경로(EAAF)를 따라 이동해 왔다. 이동성 물새의 여정은 단 2개의 국가에 그칠 수도 있지만, 도요물떼새를 포함한 많은 종들은 북극권의 번식지와 남쪽의 비번식지 사이에 이어진 편도 15,000km에 이르는 동아시아-대양주 철새이동경로(EAAF) 전체를 이용한다. 이들 중 많은 철새들은 그들의 여정 동안 여러 곳의 갯벌과 그 갯벌이 품고 있는 풍부한 무척추동물에 의존하게 된다. 특히, 도요물떼새 경우에는 북극의 번식지 혹은 남반구의 비번식지까지의 장거리 비행에 필요한 에너지를 중간에 서식지(갯벌)에서 보충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특히, 아시아의 조건대 지역은 특별히 중요한 병목지역(이동경로 중 좁게 모여드는 지점)으로 중국과 한국에 접해 있는 황해갯벌은 그 중요성이 더 인식되고 있다. 황해갯벌은 종에 따라 여름철에는 번식지, 겨울철에는 월동지, 이동시기인 봄/가을철에는 중간기착지로 다양한 종에 의해 세계적 내내 중요한 서식지로 활용되고 있다.

인천 생태국제도시 지속가능한 생태관광 및 국제협력단지



인천갯벌은 전 세계적으로 약 3,200마리 밖에 없는 멸종위기종인 저어새를 30% 이상을 부양하고 있는 중요한 저어새 번식지이며 그 외 국제멸종위기종인 검은머리갈매기 및 노랑부리백로의 번식지이자 장거리 이주 철새로 알려져 있는 도요물떼새들의 유일한 중간 기착지로서 지리적으로 중요한 지역이다. 인천의 철새 도래지역은 자연과 역사문화 유산이 많은 강화, 하루 최대 4백만명 이상의 유동인구를 자랑하는 인천국제공항이 있는 영종, 동아시아-대양주 철새이동경로 파트너십(EAAFP) 사무국 등 10여개의 국제기구가 있는 송도국제도시와 인접해 있다. 인천국제공항에서 1시간 이내 이동 가능한 인천의 철새 도래지는 철새탐조 등 생태 및 문화역사관광을 즐길 수 있는 잠정적인 관광지로 부상하고 있다. 그 중 송도국제도시에서 1km 이내 위치하고 있는 남동유수지는 매년 120쌍의 저어새가 새끼를 번식하는 곳이며, 전 세계적으로 유일하게 근접거리에서 번식하는 모습을 관찰할 수 있는 곳이다.

철새이동경로 사이트 네트워크(FSN)

철새이동경로 사이트 네트워크(Flyway Site Network, 이하 FSN)는 철새이동경로 상에서 공통으로 출현하는 이동성 물새의 종, 개체군과 서식지들의 상호연결성을 의미한다. FSN 구축은 EAAFP의 중요한 요소로 국제적으로 중요한 서식지들이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관리되어 이동경로 내 이동성 물새들의 장기적인 생존을 지원하도록 노력한다. 람사르 습지(Ramsar Site)는 이동성 물새뿐만 아니라 다양한 동식물과 생태적 군집에 의해 평가되는 '국제습지인증' 프로그램인 반면 철새이동경로 네트워크 사이트(Flyway Network Site)는 동아시아-대양주 철새이동경로에서 이동성 물새에게 국제적으로 중요한 서식지로 인정되는 '국제서식지인증' 프로그램이다.



EAAF상 국제적으로 중요한 이동성 물새 서식지 700여개 (초록색)
 EAAF 철새이동경로 사이트 네트워크(FSN)에 등록된 123개 사이트 (빨간색)



국가별 FSN 등재 사이트 수 현황	
러시아 Russia (10)	태국 Thailand (3)
미국 알래스카 U.S.A. (1)	필리핀 Philippines (3)
몽골 Mongolia (6)	말레이시아 Malaysia (2)
중국 China (19)	인도네시아 Indonesia (2)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DPRK (2)	파푸아뉴기니 Papua New Guinea (1)
대한민국 Republic of Korea (11)	싱가포르 Singapore (1)
일본 Japan (32)	호주 Australia (20)
미얀마 Myanmar (3)	뉴질랜드 New Zealand (2)
방글라데시 Bangladesh (6)	

EAAFP와 국제협력을 통한 22개국 자연유산의 보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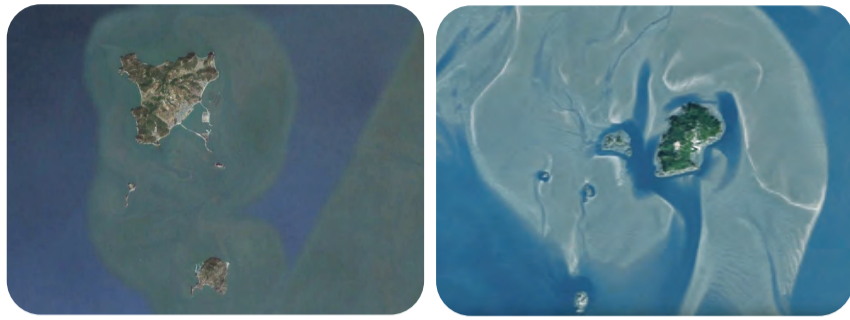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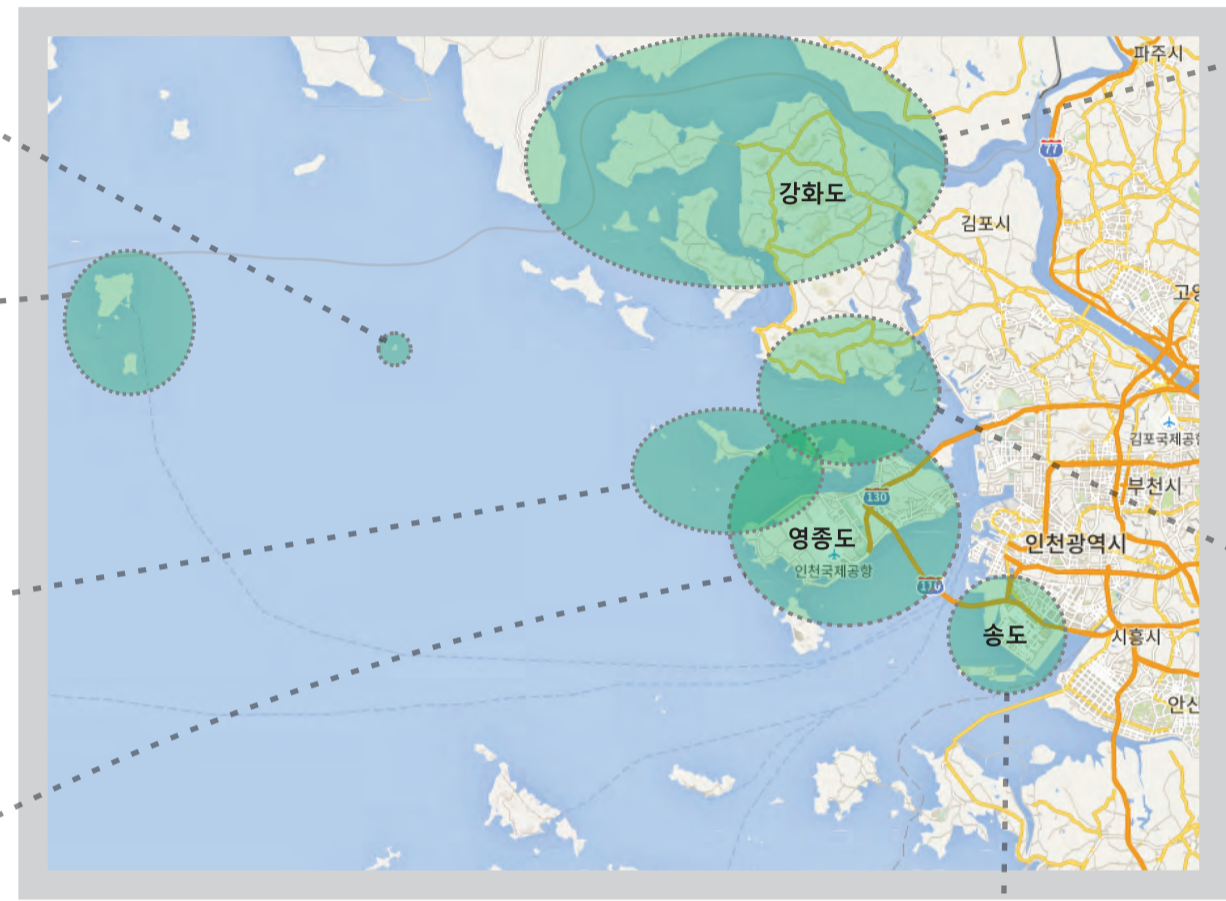


EAAF상의 철새들과 서식지들은 22개국이 공유하는 자연유산이다. 이 귀중한 자원을 장기적으로 보전하기 위한 단계들은 대개 국제적 협력을 필요로 한다. 황해지역에서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경제발전이 적절한 환경 보호장치와 균형을 이루지 않는다면, 괄목할 만한 경제성장에 오래 지속되지 못할 것이며 소중한 생태서비스를 잃어버릴과 동시에 막대한 피해를 주는 생태적 재앙도 갈수록 늘어날 수 있다.

동아시아-대양주 철새이동경로 상 국가 (총 22개국)

- 미국(알래스카)
- 러시아
- 몽골
- 중국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 대한민국
- 일본
- 필리핀
- 베트남
- 미얀마
- 방글라데시
- 태국
- 미얀마
- 방글라데시
- 말레이시아
- 브루나이
- 싱가포르
- 인도네시아
- 동티모르
- 파푸아뉴기니
- 호주
- 뉴질랜드

철새가 서식하는 인천의 중요한 갯벌



연평도, 구지도 갯벌



우도, 비도, 석도, 신도 갯벌

- 저어새 300개체, 바다가마우지 400개체 이상, 갯이갈매기 12,000쌍, 백로·왜가리(노랑부리백로 포함) 500-600개체의 번식지



동만도, 서만도, 장봉도 갯벌

- 노랑부리백로 30쌍의 번식지 (2014년 기준)
- 저어새 52쌍의 번식지 (2014년 기준)
- 갯이갈매기 10,000쌍의 번식지
- 검은머리물떼새 50쌍의 번식지



영종도 갯벌

- 검은머리갈매기 번식지 (250동지, 2015년 기준)
- 알락꼬리마도요 5,000~7,000개체의 먹이터
- 도요물떼새 30,000~40,000개체의 휴식터
- 저어새 40쌍, 150개체의 번식지와 먹이터 (2014년 기준)



매도(갯섬), 세어도 앞섬

- 매도(갯섬)
 - 저어새 108개체의 번식지 (2014년 기준)
- 세어도 앞섬
 - 저어새 16개체, 검은머리물떼새 20개체, 한국재갈매기 50개체, 갯이갈매기 1,000개체와 흰뺨검둥오리 등의 번식지 (2014년 기준)
 - 저어새의 먹이터와 휴식지



송도 매립지 & 갯벌

- 남동유수지
- 고잔갯벌
 - 매년 약 15,000개체 이상의 이동성 물새 서식지
 - 검은머리갈매기, 큰뒷부리도요, 알락꼬리마도요 등 32종 도요물떼새의 휴식터 (검은머리갈매기 160개체 이상, 2015년 5월 기준)
 - 흑부리오리 1,000개체 이상의 월동지 (2014년 1월 기준)
- 6공구 매립지
 - 검은머리갈매기 100개체의 번식지 (2015년 기준)
- 11-1공구 매립지
 - 검은머리갈매기 100~300개체의 번식지 (2015년 기준)
- 아암도
- 북측수로



강화도 북서부 갯벌

- 저어새 150~200쌍의 번식지와 먹이터
- 바다가마우지 150~200쌍의 번식지 (요도, 2014년 기준)
- 재갈매기 150쌍의 번식지
- 많은 도요물떼새와 물새들의 휴식터



강화도 남단 갯벌

- 220개체 이상의 저어새와 70개체 이상의 노랑부리백로의 최대 집단 번식지와 먹이터 (2014년 기준)
- 30개체 이상의 두루미 월동지
- 1000여 개체의 검은머리갈매기 먹이터



남동유수지

- 140쌍 이상의 저어새 번식지 (2015년 기준)
- 520마리 이상의 황오리 번식지 (2015년 3월 기준), 300마리 이상의 쇠오리, 2쌍의 청머리오리 월동지 (2014년 1월 기준)